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미국기독교경제학자회의 사례

김성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지난 1998년 1월에 있었던 미국의 한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1)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2) 그나마도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인 회합이나 단체에서만 주로 발표되었으며 (3) 논의된 입장조차도 그다지 다양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sup>1)</sup>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학회는 1998년 1월 5-6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으며 휘튼대학 경제학과가 후원하고 미국기독교경제학자회(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이하 ACE)가 주최한 것이다.<sup>2)</sup> ACE는 회원의 자격이 미국인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모임이며 정기 간행물로 소식지(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학회에서 글을 발표한 이들은 모두 다섯 명으로 대부분 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학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ACE를 편의상 미국기독교경제학자회로 번역하였다.)

학회의 제목은 “경제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경제학자들: 최전선에서의 조망(Christian Economists Doing Economics: A View from the Trenches)”이었으며, 말 그대로 실제로 경제학을 하고 있는(doing)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앙과 학문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첫째는, 자신의 학문 활동에 대한 반성이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울타리에 속한 이들에게 논의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철학이나 신학 등 제3자의 입장에서 신앙과 학문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실제 구체적인 학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trenches - 참호, 최전선이라는 단어가 이를 강조한다). 발표자들에 따르면, 이들에게 요청된 것은 그들의 신앙과 일(work)에 대해 반성적인(reflective)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발표된 글은 모두 다섯 편이었으며, 발표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sup>3)</sup>

(1) 존 런(호프 대학 경제학과 교수), “(별로 반성하지 않는) 한 기독교 경제학자의 반성”<sup>4)</sup>

- 1)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신앙과 학문에 대한 논의의 장은, 주로 기독교학문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최하는 모임들이었다. 그 외에 최근 들어서 대학원생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GSF 몇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 마스텐 지음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한국 IVP, 2000) 중 역자 조호연 교수가 첨부한 “부록 2: 본서 해설 및 한국에서의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흐름”을 참고.
- 2) 매년 1월 초에는 미국경제학회(AEA) 등 여러 사회과학 학회들이 연합으로 주최하는 연례 학술대회(ASSA)가 열리며 이 대회 중 한 세션으로 열렸다.
- 3) 필자는 이 발표문들을 휘튼 대학 경제학과 웹페이지에서 확보하였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현재는 다운로드가 안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 (2) 주디트 딘(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훌륭한 의사 되기: 기독교와 경제학 연구에 대한 반성” 5)
- (3) 도널드 헤이(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기독교인 경제학자됨에 대해” 6)
- (4) 얼 그리놀스(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건과 경제학” 7)
- (5) 마빈 코스터스(미국기업연구소), “개인의 신앙과 직업 경제학” 8)

이 글에서는 위의 다섯 발표문 중 (1)-(3) 세 개에 중점을 두어 입장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발표문들의 입장 대비

다섯 가지 발표문들은 서로 매우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경제학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부터, 현 자본주의 체제를 지원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비판적 입장까지 나뉘어 있다.

현재 원문을 널리 배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글로 이들의 입장을 정리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 글들에 대한 어떤 비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여러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소 위험하지만 과감한 입장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4)와 (5)의 입장이 있다. (4)의 입장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앙을 개인의 경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할 때 자신이 하는 경제학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치고 있다.<sup>9)</sup> 예를 들어 그리놀스 교수는 구약의 다니엘이나 요셉에게서 자신의 모범을 발견한다. 또한 그는 각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다른 소명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받은 소명은 자신이 하기 좋아하고, 할 능력이나 훈련을 갖추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결국 발견하게 될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한편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직업이 단순히 선교 사역을 위한 생계유지만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인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리적”(axiomatic)이라고 말하는 그리놀스 교수는 연구 주제의 선택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3. 정당한 직업으로서의 경제학 (루터식 접근)

존 런 교수의 발표문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그동안 해온 연구주제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얼핏 보면, 제목처럼 이 사람은 정말 별 반성없이, 별 생각없이, 신앙은 신앙대로, 경제학은 경제학대로 수행

4) John Lunn (Hope College), Reflections of an (unreflecting) Christian economist

5) Judith Dean (Johns Hopkins University), Being a good physician: reflections on Christianity and economic research

6) Donald Hay (University of Oxford), On being a Christian economist

7) Earl Grilons (University of Illinois), Piety and political economy

8) Marvin Koster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ersonal faith and professional economics

9)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장 구분을 시도하다 보면 다소간 원저자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많으나, 다양한 입장 소개라는 명분하에 진행하고자 한다.

하고 있는 이원론자로 보인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신앙적,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처음에는 개인경건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장로교) 자신이 경제학자로서의 직업을 대하는 신학적 입장(루터교의 소명 개념) 또한 분명히 밝힌다.

자신이 설명하는 그간의 연구 주제 및 방법론에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별로 기독교적인 구석이 없다. 오히려 그는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구제 사역 등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비판을 제기한 적이 많음을 고백한다. (즉, 조지 마스텐 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이 자신의 학문을 inform했다기보다는, 거꾸로 자신의 학문이 자신의 신앙 및 교회 생활을 inform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재 경제학 연구 내역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앞의 (4)의 입장과 다른 점), 이는 어찌보면 평생을 통해 모순적으로 지고 나가야 할 짐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은 소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맡겨진 임무를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4. 섬기는 직업으로서의 경제학

주디트 딘 교수는 비교적 젊은 학자로서 최근 ACE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이다. 그녀는 기독교인 경제학자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며, 그 셋이 모두 개별적인 가치가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하며 또한 바람직한 수준에까지 널리 퍼져있지 않은 역할로 “의사”로서의 경제학자로 지목한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역할 모형은 바로 철학자, 의사 그리고 개혁활동가이다. 쉽게 말하여 철학자란 기준에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다음의 도널드 헤이 교수가 전형적으로 보여줄 모습으로 주류 경제학의 진체 및 태도 등에 대해 철학적, 신학적 분석 및 비판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딘 교수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필요한 훈련(철학, 신학 등의)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0)</sup>

한편 세 번째인 개혁활동가는 그녀의 표현으로는 advocate인데,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아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비판하고, 공공 정책이 기독교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들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 중에 진지하게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의 비전 또한 경제학자가 볼 때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건전한 경제학 논리의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sup>11)</sup>

딘 교수 자신이 공표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이전에 이미 저명한 경제학자 할 배리언(Hal Varian)교수가 옹호한 적이 있다. 당시 배리언 교수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지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만 빠져있는 상아탑 속의 이론경제학자들과, 역시 기술적인 문제들만 파고드는 실증경제학자들로 대변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경제학의 모델로서 자연과학(즉 물리학)이나 수학 또는 통계학만을 따라가지 말고 의학의 모범-즉,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전문가-을 따라가자고 주장한 것이다.

10) 그녀는 이를 a plethora of philosophers라고 표현한다.

11) 진지한 경제학적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개혁만을 외치는 상황을 꼬집어 딘 교수는 a pride of advocates라고 표현한다.

딘 교수는 의사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이 처한 경제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경제학자의 역할을 지목하며, 여기에는 연구 주제의 선택 및 그 해결책에 대한 평가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차별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훌륭한 의사(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세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a. 건전한 이론을 개발하라, b. 든든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라, c. 연구 결과를 널리 공표하라.

필자는 이 입장을, 앞의 개인경건의 입장이나 루터교적 입장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 5. 주류 경제학 방법론 및 전제 비판 (신학적, 윤리학적 접근)

도널드 헤이는 그의 책으로도 이미 한국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교과서를 저술하였고, 한편 소위 기독교와 경제학에 관한 책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실속있고 널리 알려진 책을 낸 바 있다.

이 발표문 또한 그 책 Economics Today에서 어느 정도 발췌 소개하는 수준이다.